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 완료

추첨형 10·추천형 40명 등 총 50명... 전북자치도교육청, 21~23일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제2기 전북학생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2기 전북학생의회는 추천형 학생의원 10명과, 추천형 학생의원 4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9명이고, 성별로는 남학생 23명, 여학생 27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발된 학생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21~23일 사흘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뒤 3월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은 아이스브레이킹, 기본 소양 교육, 사례 나눔, 학생의회 운영 체계 및 조직, 2024년 10대 핵심과제 안내, 모의 분회의 진행 등 학생의원으로서의 자치 역량과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제1기 전북학생의회가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냈다면, 제2기 학생의원들은 어떤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면서 "2024년 전북학생의회가 20만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 전북교육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파순단대학교 사회정치대학 쿤쿤랏(Kunkunrat) 학장과 부학장, 학과장, 단과대학 교원 등의 방문단이 지난달 30일 전북대를 찾아 단과대학 차원의 세부협정(MOA)을 맺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인도네시아 단과대학 협력 강화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파순단대 사회정치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정용준)은 인도네시아 파순단대학교(UNPAS: UNIVERSITAS PASUNDAN) 사회정치대학과 단과대학 협력 강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순단대학교 사회정치대학 쿤쿤랏(Kunkunrat) 학장과 부학장,

학과장, 단과대학 교원 등의 방문단이 지난달 30일 전북대를 찾아 단과대학 차원의 세부협정(MOA)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학생과 교수 교류를 증진하고, 학술 자료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북대는 동남아연구소에서 진

행하는 연구 분야와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과학대학 본관 빅데이터분석실과 방송제작실습실 등을 소개했다.

쿤쿤랏 파순단대학교 사회정치대학장은 "캠퍼스 투어를 통해 전북대의 우수한 연구시설과 강의실을 둘러보고 매우 감탄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교가 협력해 동반 성장할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용준 사회과학대학장은 "이번 방문으로 양 대학 간 협력 관계가 더 끈끈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파순단대학교 사회정치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1학기 수강생 모집... 16일까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오는 16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학기 교육강좌는 3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학습 수요를 반영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예술학부, 직업교육학부 등 6개 학부, 182개 강좌를 마련했다.

한편, 수강신청은 전북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https://ec.jnu.ac.kr/>), 전화 접수(063-288-0022), 방문 접수(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로 하면 된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좋은나무 국제학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글로벌대학 도약 전력 기울일 것”

전주대, 한인선교사회 등 캄보디아 3개 기관과 협약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대표 박효준), 좋은나무 국제학교(대표 김현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총장 김재호)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교봉사처는 세 기관과 상호 교육 협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시범립지부와의 지난 12일 공동 선교사업 추진과, 해외 선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좋은나무 국제학교는 13일 김문택 선교봉사처장과 김현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교육 기

회 제공, 양 기관 교육 자료 지원 및 선교 협력, 시설 사용 상호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6일에는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김문택 교인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학술 교류와 지원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은 "이번 세 기관과 맺은 협약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에게 도움이 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2024년 학생 기자단 모집... 2일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2024년 학생 기자단 및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일까지 학생 기자단은 회관 홈페이지-독서문화진흥-수강신청에서, 홍보 서포터즈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rimoon@jedu.kr)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학생 기자단이 신설돼 청소년 스타터카페 '꿈딩'과 '온고을 스튜디오'에서 아이디어 구성과 미디어 제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 학생 중심의 회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홍보 서포터즈는 가족 서포터즈와 일반 서포터즈로 나뉘어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감사담당자 책임의식 제고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창조미래 2층 회의실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감사담당공무원들이 공직가치와 전문성을 높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달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장학사 등 125명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교육은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기본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기본 자세 및 소양, 공직기강 확립 방안, 청렴 교육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김세진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장이 "청렴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주제로 공직자의 기본가치인 청렴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이홍열 감사관은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감사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감기관을 배려하되, 비위에는 엄정하고 품격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건강한 학교생활 돕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올 상반기 위센터 상담 인력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상반기 위(Wee)센터 상담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상담 전문인력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 상담 전문인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위기학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연수는 공통연수와 선택연수로 나뉘어 6개 분야로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공통연수는 품행장애와 반항성장애 학생 상담 및 부모 상담, 학교 응급지원에 위한 애도교육 및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이해를 △선택연수는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이해 및 개입의 실제, 변증법적행동치료 DBT, 놀이기반 집단상담 워크숍 등이 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위(Wee)센터 상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과 치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Wee)센터 운영 내실화와 학생상담 질 제고를 통한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며 태권도 진흥을 목적으로 전북태권도협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국제태권도고 설립 '박차'

무주교육지원청, 전북태권도협회와 협약 체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며 무주군민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작년부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며 태권도 진흥을 목적으로 전북태권도협회(회장 고훈수)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및 관련 교육 사업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태권도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훈수 전북태권도협회 회장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은 전문 태권도인을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의 대회 참가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승기 교육장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협력 약속에 감사드리며, 전북태권도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라북도 태권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이 더욱 힘을 얻고, 지역의 태권도 교육이 더욱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권도체육학과 지역 인재 특별전형 추진

전주비전대 현장실습지원센터, 무주교육지원청과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을 비롯해 조성훈 교육지원과장, 조성형 행정지원과장, 안치환 장학사, 윤장근 장학사와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과 김순정 태권도학과장 고훈수·이정국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태권도체육학과 지역 인재 특별전형 추진 △상호간 태권도 교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 태권도 문화 진흥 △입학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활동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우병훈 총장은 환영사에서 "무주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태권도 진흥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김순정 학과장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입학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면서 무주가 태권도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전주비전대학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목송산업개발, 국립군산대에 대학발전기금 기부

목송산업개발(대표 이명식)은 지난달 30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에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기부자 대표로 목송산업개발 이기홍 총괄사장, 최훈장 실장, 기막동 부사장과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 정용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목송산업개발은 시설 경비업, 건물 위생 관리업,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앞으로 국립군산대의 시설물 경비와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노력해줄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